



맹지도 농로 개설 가능할까... 조례 추진 '주목'

비법정 도로·농기계 경작로로 이용시 설치 가능 기부채납·5인 이상 혜택 조건... 농민 수용 '관건'

주변이 모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진입로를 낼 수 없는 토지인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계위원회는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사 및 개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 '농기계 경작로'란 사람·가축·차량의 통행, 자재·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해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법정도로인 농로는 제외)을 말한다.

현재까지 마련된 조례안에 따르면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시

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 지역,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돼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단 농기계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경작로의 연장을 200m 이상 또는 편입토지 5필지 이상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도로 폭은 대형 농기계 이동을 고려해 최소 5m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계위원회는 9일 오후 4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

최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농기계 경작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의 일부분을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준비중인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경쟁력과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문인관에서

"들불축제 문제 과장... 불놀이 유지를"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들불축제는 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인정받은 문화관광 축제다.

초창기부터 10여 년 이상 직·간접적으로 들불축제에 관여해 온 필자는 올해 들불축제를 바라보며 지금껏 가져온 자긍심이 무너졌다. 국내서 대형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산불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축제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국내·외 초청 인사와 관광객을 초



고태민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대해 놓고 광장에 준비한 달집 하나 태우지 못하는 등 축제 성

산림보호법상 크게 저축을 받지 않는 축제의 합목적성을 갖춘 유일한 으뜸이다. 새별오름에서 '들불축제'를 개최한 이후 매년 30만명 안팎의 인파가 몰리고 수백억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대규모 축제

로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2013년부터 축제 명칭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 '제주들불축제'로 바꾸고 개최시기도 3월로 바꾼 것은 당초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앞두고 개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생태계 파괴 등 우려 공감 개최 시기·생태계 보전 등 보완 후 축제 계속 진행을

공을 위한 사망감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고(故) 신철주 군수가 국내·외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정월대보름 달 집태우기, 도내 목축 세시풍습인 출앗 가두기와 목장에 불을 놓는 방에 풍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국내 유일의 '불'을 테마로 하는 축제로 창안한 것이다.

첫 3년간은 일정한 개최지 없이 마을공공목장을 옮겨 다녀야 했다. 그러다 교통여건과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임목지와 떨어져 안전한 새별오름을 최종 선택했다.

제주의 368개 오름 중 새별오름은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한라산 국립공원과 원거리에 있으며, 산림 인접지역 이달봉과 100m 이상 떨어진 남쪽 방향 일

부문에 불놀이를 재현하고 있어

를 태우는 의미만이 아니라 도민통합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축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는 대형 불꽃놀이 축제나 강원도 산천어 축제와 비교해서 제주들불축제가 환경적 관점이 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최시기와 생태계 보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더욱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교통 할인 혜택"

제주4·3희생자와 유가족이 교통수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사진)은 8일 제주4·3특별법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다른 유공자와 달리 수송시설(교통수단) 할인이 제공되지 않는다.

반면, 5·18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등이 이용료를 받지 않고 할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할인을 제공하는 수송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국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철도와 지하철 할인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국회·부미현기자

금융약자 신용 회복 도울 '금융포용기금' 신설

어제 제주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산 취약계층의 주거·소득·생활안정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 폭을 넓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금융 이용 확대를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 등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체 방지를 유도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민간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한다. 이



제주도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 제공

는 소득이나 신용이 낮을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해 채무부담은 높아지고 저축 등 자산형성은 어려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기금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독자가 등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가정 '빛나로써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시지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업인 제주흔디론에 12억 원의 재원을 확대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부모님을 위한 선물증정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산삼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진주스기계저체
*1번 소진시 2번 사용용 제공합니다.

그랜드보청기
하트브랜드 대상!!
2021 107184
하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른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가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점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